

2025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노동시장 전망

동향분석실

I. 2025년 상반기 노동시장 개관

2025년 상반기 취업자는 18.1만 명 증가했다. 2024년 4분기 5.2만 명 수준까지 줄었던 취업자 증가폭이 올해 2분기 20.7만 명으로 늘었다. 고용률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5월에는 15~64세 고용률이 70%를 넘어섰다. 실업률과 비경제활동인구는 늘어나지 않았다. 지난해 하반기 나타난 고용의 양적 부진에서 상당히 벗어난 모습이다.

2025년 상반기 고용은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남성 고용률은 감소한 반면, 여성 고용률은 증가했다.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여성 고용 상황이 남성에 비해 더 좋았다. 남성 취업자가 다수인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이 여전히 부진한 반면, 여성 고용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표 1〉 주요 고용지표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p, 전년동기대비)

	반기			분기		
	2024년 상반기	2024년 하반기	2025년 상반기	2024년 4분기	2025년 1분기	2025년 2분기
취업자	220	99	181	52	155	207
실업자	59	14	-5	67	21	-32
비경활	-113	48	3	33	-6	13
고용률	0.3	0.0	0.2	-0.1	0.2	0.2
실업률	0.2	0.0	0.0	0.2	0.1	-0.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KOSIS.

연령대별로는 20대, 50대 고용 부진과 60세 이상 고령층 고용 증가세가 뚜렷하게 대비된다. 청년층은 신규 취업자, 초대졸자를 중심으로 고용이 부진하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는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고용 부진이 지속됐다. 건설업은 매 분기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됐다. 서비스업 고용 상황은 산업별로 상이하다. 숙박 및 음식점업과 운수창고업 고용은 소폭 감소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은 양호한 고용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미취업자 변화를 살펴보면, 실업률은 청년층에서만 증가했다. 인구 대비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20대에서 증가한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감소했다. 20대 '쉬었음'은 증가폭이 축소됐다.

아래에서는 부문별 노동시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취업자 동향을 연령대, 종사상 지위, 산업별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본 후 미취업자 동향을 통해 경제활동 참여 현황을 점검한다. 결론에서는 2025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를 바탕으로 2025년 하반기 고용 전망을 제시한다.

Ⅱ. 2025년 상반기 부문별 노동시장 평가

1. 청년층, 50대 고용 부진

20대 취업자는 상반기 18.2만 명¹⁾ 감소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취업자 감소폭이 늘었다. 취업자 감소 중 상당 부분은 인구 효과(-11.1만 명)에 의한 것이다. 다만, 고용률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 효과만으로 청년 고용 부진을 설명할 수는 없다.

20대 취업자 감소분의 절반가량은 신규 취업자²⁾ 감소이다. 근속 1년 미만 취업자가 7.2만 명 줄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 신규 취업자가 전 산업 중 가장 많이 감소했다. 근속 1년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취업자와 유사한 규모로 감소했다. 다만, 신규 취업자 및 피보험자 감소폭은 2분기 들어 다소 줄어들고 있다. 더불어 신규 학졸자³⁾ 고용률도 1분기 감소에서 2분기 증가로 전환했다. 청년 노동시장 진입이 여전히 어려웠지만, 그 정도가 더 심해지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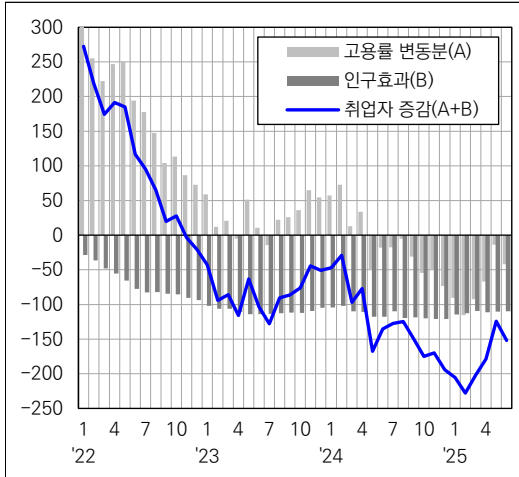
1)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이후 수치는 전연동기대비 2025년 상반기 증감을 의미한다.

2) 신규 취업자는 근속 1년 미만 취업자를 의미한다.

3) 신규 학졸자는 최종학교 졸업연도가 2024년, 2025년인 사람을 의미한다.

[그림 1] 20대 취업자 수 변화 요인 분해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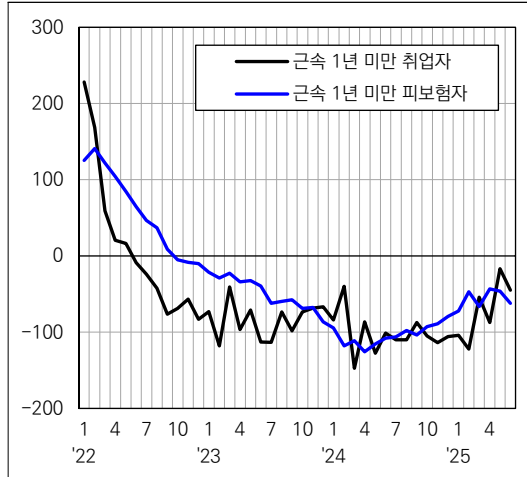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2] 20대 근속 1년 미만 취업자, 피보험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EIS.

학력별로는 초대졸 청년 고용이 부진했다. 20대 초대졸 고용률이 3.6%p 줄었다. 제조업, 건설업 부진이 청년 남성 초대졸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 대졸 이상 청년 고용률은 1분기까지는 줄었으나, 2분기에 증가 전환했다. 도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대졸자 고용이 늘었다.

〈표 2〉 20대 졸업자 학력별 고용률 증감 추이

(단위 : %p, 전년동기대비)

	반기			분기		
	2024년 상반기	2024년 하반기	2025년 상반기	2024년 4분기	2025년 1분기	2025년 2분기
전체 졸업자	-0.3	-1.2	-1.0	-1.5	-2.1	0.1
고졸 이하	-0.8	-3.4	-0.3	-3.5	-2.2	1.6
초대졸	-0.4	-1.8	-3.6	-2.3	-4.6	-2.5
대졸 이상	0.1	0.4	-0.3	-0.1	-1.0	0.4

주 : 수학 여부 변수 답변 중 '재학', '휴학'을 재학자로, '졸업', '중퇴', '수료'를 졸업자로 분류하였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20대 세부 연령별 취업자 변화가 어떤 산업에서 주로 나타나는지 알아본다. 20대 초반 취업자는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 업황 부진이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20대 초반 취업자 감소로 이어졌다. 20대 후반 취업자는 제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

스업, 건설업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제조업, 건설업 업황 부진이 20대 후반 청년 고용에도 영향을 미쳤다.

〈표 3〉 20대 세부연령별·주요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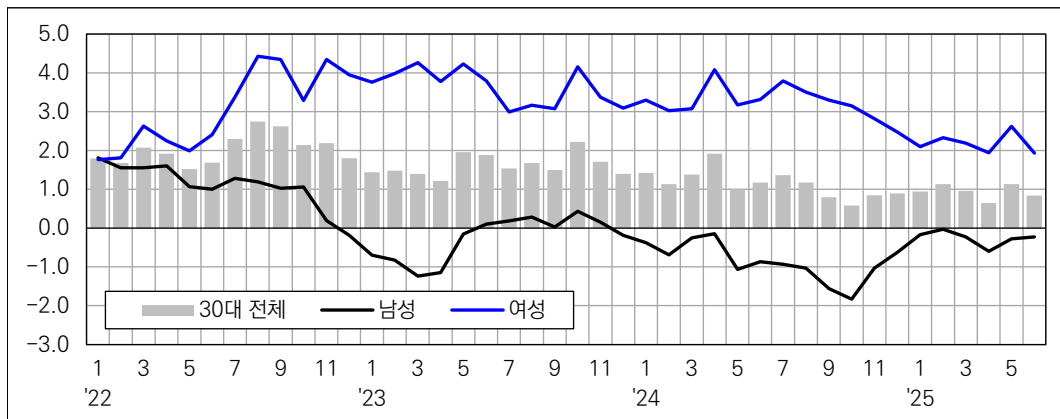
	20~24세				25~29세			
	2025년 상반기	분기			2025년 상반기	분기		
		2024년 4분기	2025년 1분기	2025년 2분기		2024년 4분기	2025년 1분기	2025년 2분기
전 체	-107	-118	-114	-101	-74	-62	-98	-51
제조업	-25	-30	-32	-18	-50	-35	-47	-54
건설업	-21	-16	-23	-19	-22	-23	-33	-11
숙박음식	-40	-1	-24	-55	6	9	13	0
전문과학	3	-16	-6	13	-23	-4	-24	-22
교육서비스	-7	13	-1	-13	-5	22	4	-15
보건복지	9	-5	7	10	2	-18	-10	1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30대 취업자는 11.1만 명 늘었고 고용률도 0.9%p 증가했다. 30대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는 이유는 30대 여성 고용률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년간 30대 여성 고용률은 큰 증가세를 보였다. 동일 기간 어떤 연령대·성별보다 큰 고용률 증가폭이다. 반면, 30대 남성 고용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30대 남성 취업자는 증가했지만, 인구 효과를 제외하면 오히려 감소했다.

〈그림 3〉 30대 성별 고용률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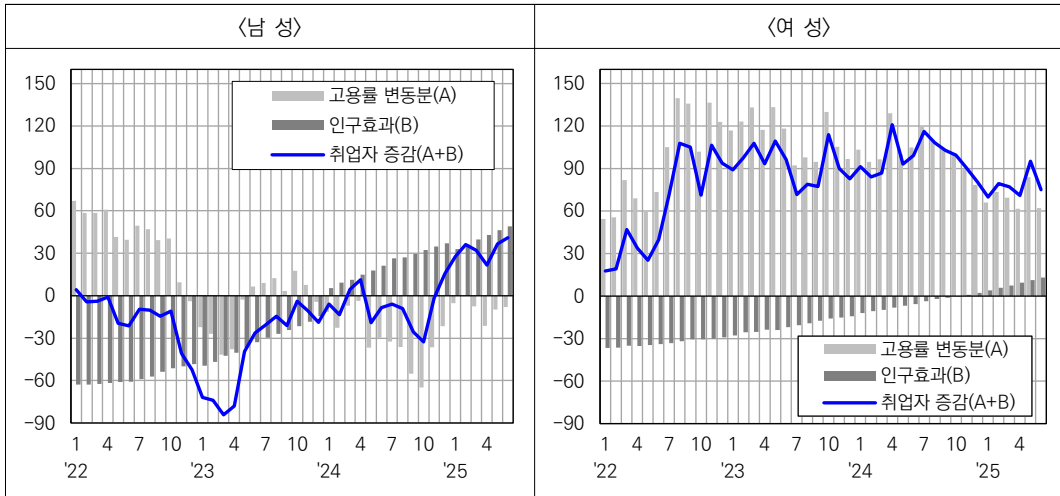
(단위: %p,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4] 30대 성별 취업자 수 변화 요인 분해 결과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30대 여성 취업자는 서비스업 위주로 증가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순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컸다. 증가한 고용 대부분이 상용직·36시간 이상 취업자에 해당한다. 30대 남성 취업자는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증가했으나, 도소매업, 건설업에서 감소했다.

[표 4] 30대 성별·주요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30대 남성				30대 여성			
	2025년 상반기	분기			2025년 상반기	분기		
		2024년 4분기	2025년 1분기	2025년 2분기		2024년 4분기	2025년 1분기	2025년 2분기
전 체	33	-6	32	33	78	90	75	80
제조업	-2	-22	-11	7	-19	-20	-21	-17
건설업	-16	10	-8	-24	6	0	3	8
도소매업	-23	-35	-26	-20	3	-15	3	4
정보통신업	16	9	16	17	20	37	33	8
전문과학기술서비스	43	50	45	41	16	18	13	19
교육서비스	17	5	13	21	32	24	26	39
보건사회복지서비스	-1	-11	-5	3	36	-3	29	43
협회·개인서비스	-12	-10	-10	-13	-7	11	-11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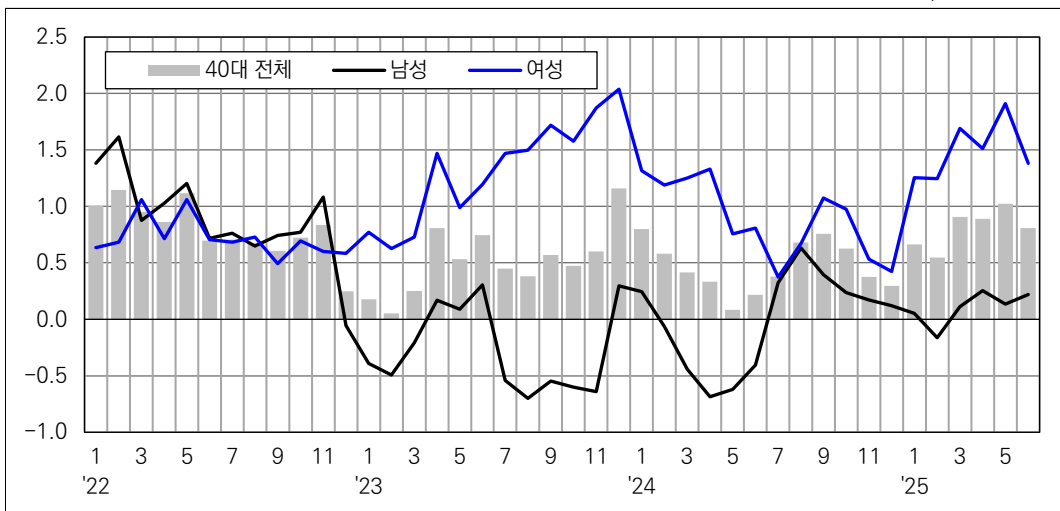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40대 취업자는 인구 효과 영향으로 5.7만 명 감소했으나, 인구 효과(-11.8만 명)를 제외하면 오히려 증가했다. 인구 감소폭이 취업자 감소폭에 비해 크기 때문에 고용률은 0.8%p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나은 수치를 감안하면, 40대 고용은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40대도 여성 고용이 남성 고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남녀 모두 취업자가 감소했지만, 여성은 인구 효과를 제외하면 취업자가 늘고 있다. 여성 취업자는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보험업 등 주로 서비스업에서 늘었고, 남성 취업자는 제조업, 건설업에서 감소했다.

[그림 5] 40대 성별 고용률 증감 추이

(단위 : %p,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50대 취업자 수는 3.1만 명 감소했다. 지난해는 50대 인구가 증가하면서 취업자도 소폭 늘었다. 올해는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취업자도 감소로 전환했다. 고용률도 2024년 2분기부터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50대 고용은 긍정적인 상황이라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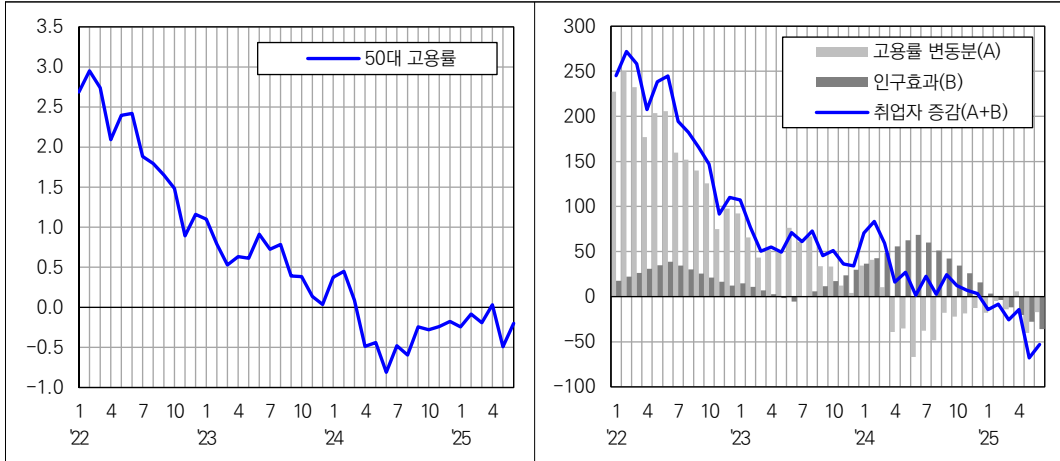
50대 남성 건설업 취업자 감소폭이 크다. 건설업 업황 부진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경우 50대 건설업 고용 감소도 지속될 수 있다. 여성은 도소매업에서 취업자가 가장 많이 감소했다. 돌봄 관련 서비스직 위주로 증가하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여성 고용 증가폭은 2분기 들어 크게 줄었다.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는 35.1만 명 증가했다. 고령층 고용은 인구구조 변화와 노인일자리 사업 영향에 의해 좌우된다. 인구 효과에 의해 취업자(17.4만 명)가 크게 증가했고,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로 간주할 수 있는 취업자⁴⁾도 9.7만 명 증가했다. 고령층 고용 증가폭은 노인일자리 사업 영향을 제외하더라도 전 연령대 중 가장 크다. 고용률 증가폭도 커졌고, 2분기에는 실업률

도 감소했다. 즉, 고령층 노동시장 진출은 여전히 활발하다.

[그림 6] 50대 고용률 증감(좌) 및 취업자 수 변화 요인분해 결과(우)

(단위 : %p, 천 명,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5] 50대 성별·주요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50대 남성				50대 여성			
	2025년 상반기	분기			2025년 상반기	분기		
		2024년 4분기	2025년 1분기	2025년 2분기		2024년 4분기	2025년 1분기	2025년 2분기
전 체	-21	-9	-14	-28	-9	17	-2	-17
농림어업	-13	-15	-11	-15	-13	-3	-8	-18
제조업	14	44	33	-6	14	6	21	6
건설업	-56	-68	-70	-42	-11	2	-16	-6
도소매업	20	16	16	24	-41	-54	-41	-40
운수창고업	15	25	15	15	0	-2	-1	1
전문과학	-2	-5	-9	6	21	18	23	19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10	-27	-10	-11	-10	-17	-8	-12
공공행정	17	-7	13	21	3	1	1	5
교육서비스	-2	18	0	-4	11	12	0	22
보건사회복지서비스	2	-4	7	-2	17	68	34	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4) 65세 이상·17시간 미만·임시직·공공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단순노무직 및 서비스종사자를 의미한다.

고령층에서도 여성 고용이 남성 고용에 비해 호조를 보였다. 남성 취업자 증가 대부분은 인구 효과에 의한 것인 반면, 여성은 인구 효과를 제외하고도 취업자가 증가했다. 여성 고령층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가 크게 증가했다. 남성의 경우 제조업 취업자 증가가 특징적이다. 인구 효과를 제거해도 고령층 남성 제조업 취업자는 유의미하게 늘었고, 그 추세가 2022년부터 계속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상용직·36시간 이상 근무·생산직에 해당한다.

〈표 6〉 60대 성별·주요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60대 남성				60대 여성			
	2025년 상반기	분기			2025년 상반기	분기		
		2024년 4분기	2025년 1분기	2025년 2분기		2024년 4분기	2025년 1분기	2025년 2분기
전 체	137	78	116	159	214	161	234	194
농림어업	-15	-7	4	-33	-27	0	-1	-53
제조업	50	42	52	49	13	6	15	10
도소매업	-17	-14	-23	-10	26	20	27	24
숙박음식	18	7	12	23	30	12	22	38
사업시설	16	-4	6	26	-3	-7	-8	2
보건사회복지서비스	21	22	16	25	117	55	104	12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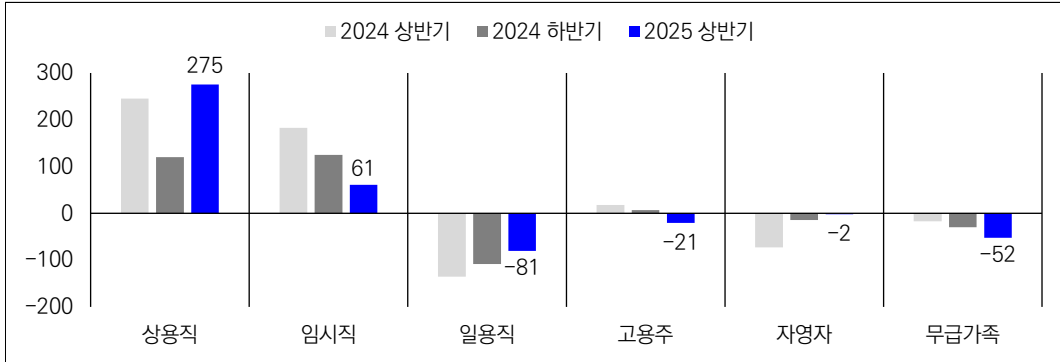
2. 상용직 위주의 고용 증가

2025년 상반기 상용직 증가폭은 전년 동기 수준을 회복했다. 2024년 하반기 상용직 증가폭이 12만 명 수준으로 줄었으나, 2025년 상반기에는 27만 명으로 다시 늘었다. 반면, 임시직 증가폭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는 무급가족종사자가 감소폭이 커졌다.

상용직 변화를 업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용직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 등으로 60세 이상 고령층 상용직이 크게 증가했다. 20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용직도 증가 전환했다. 2024년에는 청년층 간호 관련 고용이 약 3만 명 감소했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이 부분 청년 상용직 고용이 다시 늘었다.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금융보험업과 같이 고용 상황이 좋은 서비스업에서도 상용직 위주의 취업자 증가가 이어졌다. 다만, 여전히 제조업, 건설업 상용직은 감소했다.

[그림 7]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 변화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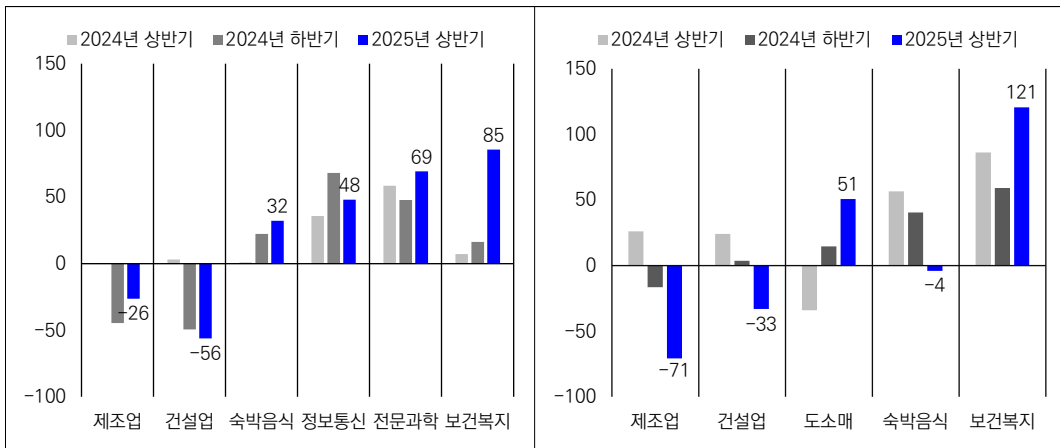
임시직 증가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업황이 부진한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임시직이 줄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 임시직도 상반기 감소 전환했다. 반면, 노인일자리사업 영향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임시직은 크게 증가했다.

일용직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일용직 변화의 대부분은 건설업 고용 변동으로 설명된다. 건설업 일용직은 2020년 이후 꾸준히 감소했고 2025년에도 전 산업 중 일용직 감소폭이 가장 컸다. 고용 상황이 좋지 못한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도 일용직이 감소했다.

무급가족종사자 감소는 주로 농림어업에 집중됐다. 이 산업 무급가족종사자 감소가 2024년 상반기부터 이어진다. 숙박 및 음식점업 무급가족종사자도 감소했다.

[그림 8] 상용직(좌), 임시직(우) 산업별 취업자 증감 변화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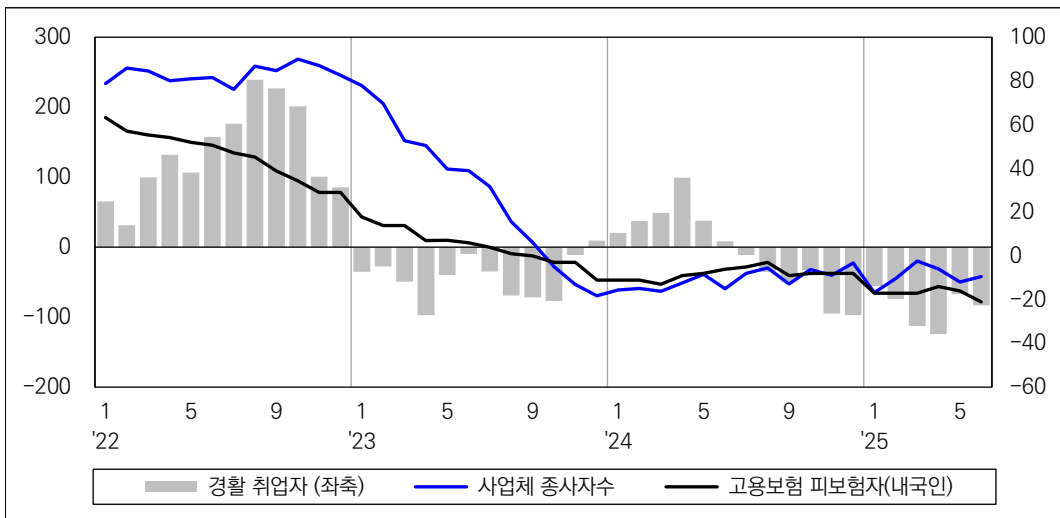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3. 제조업 고용 부진 지속

제조업 취업자는 8.6만 명 감소했다. 지난해의 고용 부진이 올해도 이어졌다.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감소폭이 확대됐다. 사업체노동력조사와 고용행정통계에서도 제조업 고용 감소세가 약 2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올해 상반기 약 1만 명 감소했고, 내국인 피보험자는 지난해보다 감소폭이 확대되어 1.7만 명 감소했다.

[그림 9] 제조업 고용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주: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는 조사 대상 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재(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일시 휴직자 포함)를,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종사자는 조사 대상 사업체에서 당월 마지막 영업(근무)일에 일한 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계약 형태가 상용, 임시인 근로자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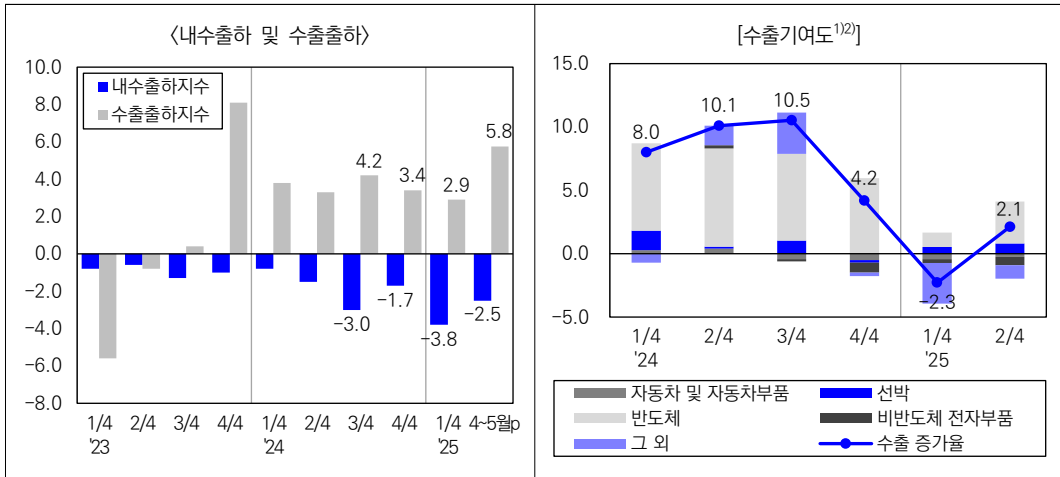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통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EIS.

올해 상반기 제조업 경기는 국내 수요 감소,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부진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조업 내 대다수 업종에서 내수 출하가 감소했다. 특히 건설용 중간재를 중심으로 중간재 내수 출하 감소가 지속됐다. 한편, 반도체가 전체 수출을 견인했지만, 그 외 업종의 수출은 부진했다. 반도체와 비반도체 간 수출 실적 편차가 확대됐다.

제조업 경기 부진과 함께 지난해 말부터 증대된 대내외 불확실성은 제조업 구인 수요를 감소시켰다. 제조업 구인인원(고용행정통계)과 제조업 빈일자리수(사업체노동력조사) 모두 지난해 말부터 감소폭이 확대됐다. 제조업 구인수요 감소는 최근 구인구직비율 하락의 주된 요인이다(그림 11 참조). 또한 제조업 신규취업자 감소폭도 확대됐다. 제조업 신규 취업자는 3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체와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그림 10] 제조업 생산 및 수출 추이

(단위 : %, %p,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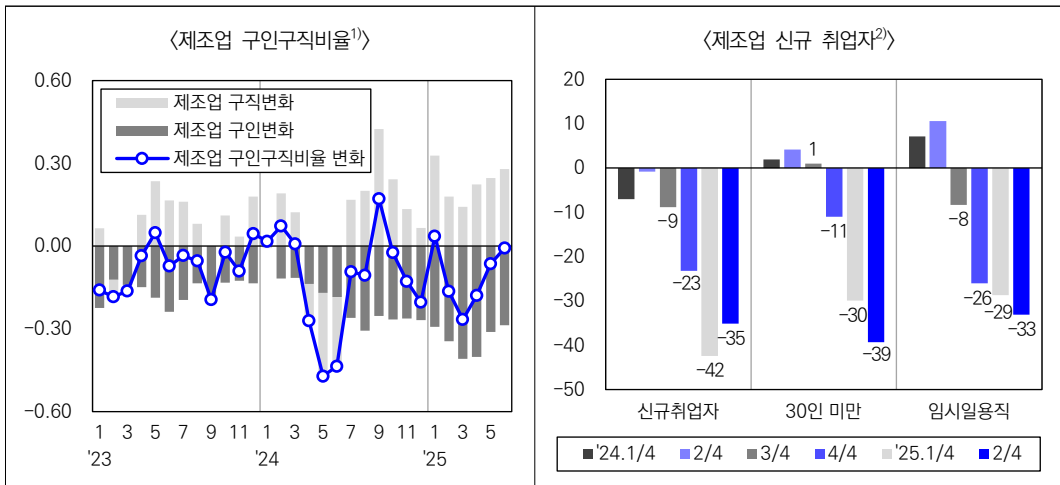
주 : 1) 품목별 수출 기여도 = 해당 품목 수출 증가율×기준시점의 해당 품목 수출 비중이며, 품목은 MTI 3단위 기준임.

2) 수출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무역협회, 「무역통계」.

[그림 11] 제조업 신규 취업자 및 구인구직비율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주 : 1) 구인구직비율은 빈일자리/실업자 비율이며, 제조업 실업자는 전직 기간이 1년 미만인 실업자 중 이전 종사 산업이 제조업이었던 실업자를 의미함.

2) 신규 취업자는 근속기간 3개월 미만인 취업자를 의미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 연도.

올해 상반기 제조업 고용 감소는 건설산업 의존도가 높은 산업과 장기적으로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나타났다(그림 12 참조). 고무·플라스틱, 비금속광물, 1차 금속, 금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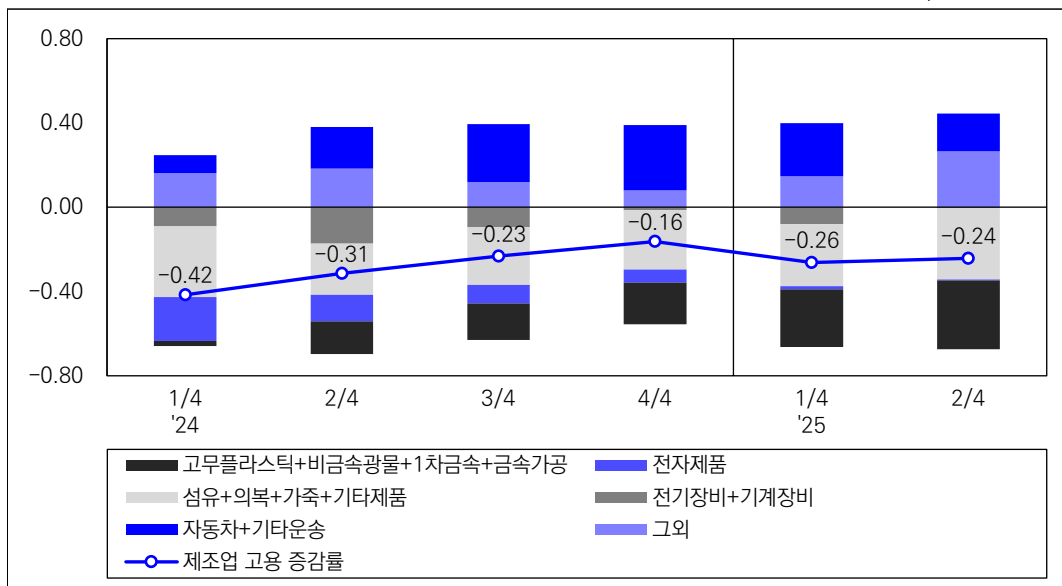
가공 제조업은 건설 경기 침체 영향으로 고용 감소폭이 확대됐다. 섬유, 의복, 가죽, 기타제품 제조업은 고용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고용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섬유, 의복, 가죽제품 제조업은 생산시설 해외 이전으로 생산 및 고용이 장기 감소하고 있는 업종이다. 추세적인 고용 감소에 시장 수요까지 줄어들면서 이 업종들에서 고용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은 업황이 양호함에도 고용은 부진하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세부 산업 간 업황 편차를 들 수 있다. 반도체 제조업 경기는 호조이나 비반도체 부문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장치 산업인 반도체 제조업은 경기 상승에 따른 고용 증가에 한계가 있다. 비반도체 부문은 업황 부진이 비교적 고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고용이 감소했다.

[그림 12]를 보면 자동차 제조업과 기타운송장비 제조업은 고용이 증가했다. 이는 대부분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고용 증가에 의한 것이다. 조선 산업 수주 증가 영향일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제조업 고용 증가 규모는 0.1만~0.2만 명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경기둔화, 고금리, 고물가 등 구매 여력 하락에 따른 내수 부진, 생산 감소로 자동차 제조업 업황이 부진했다. 자동차 제조업은 고용과 경기 간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자동차 제조업 업황에 따라 고용도 2024년부터 완만한 둔화세가 나타났고, 이러한 추세는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졌다.

[그림 12] 제조업 고용 증감률 및 세부업종별 기여도

(단위 : %, %p, 전년동기대비)



주 : 1) 업종별 기여도 = 해당 업종 고용 증가율×기준시점의 해당 업종 고용 비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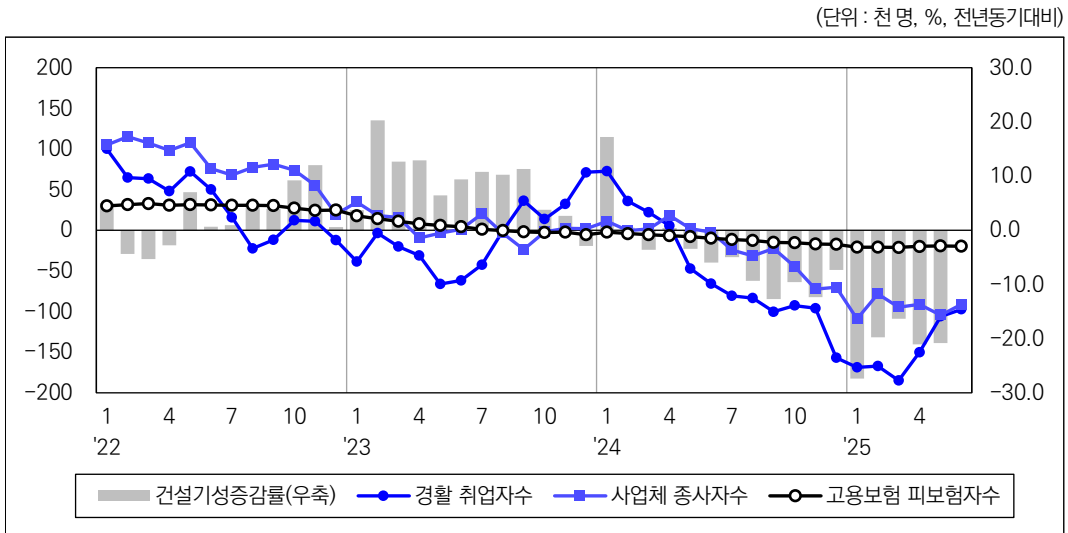
2) 고용 증감률은 사업체 종사자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4. 건설업 고용 큰 폭 감소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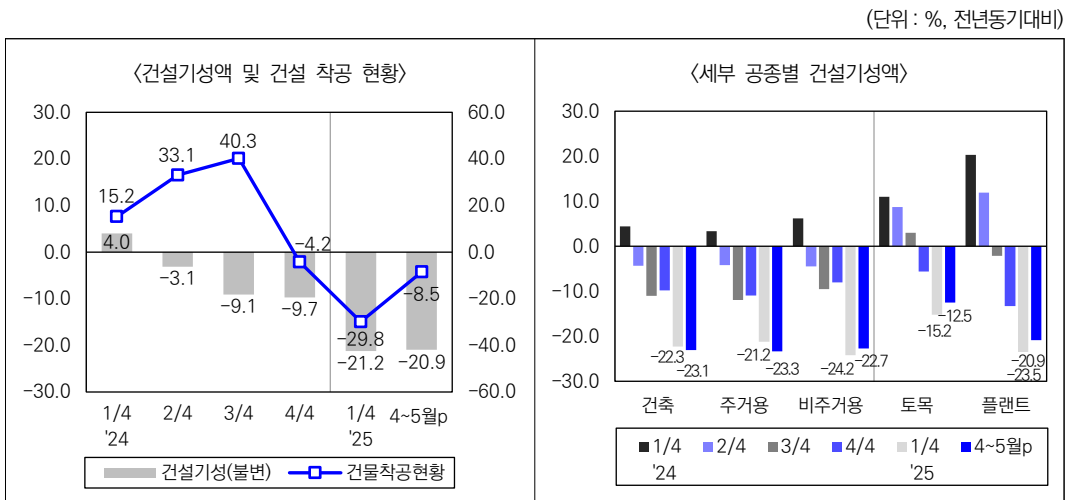
건설업 취업자는 14.6만 명 감소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업 고용도 1년 넘게 감소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취업자 감소 규모는 17.4만 명에 달한다. 2분기 들어

[그림 13] 건설업 고용 증감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EIS.

[그림 14] 건설기성 및 건설 착공 현황, 공종별 건설기성액 추이



주: 좌측 그림의 건설기성액은 불변가성액, 우측 그림의 세부 공종별 건설기성액은 경상가성액임.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기저효과 영향으로 취업자 감소폭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감소 규모가 크다. 사업체노동력조사 기준 건설업 종사자 수도 올해 들어 감소폭이 더욱 확대됐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에서 모두 감소폭이 확대됐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감소폭도 확대됐다. 과거 피보험자 감소 규모가 0.5만 명 전후였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2만 명가량의 피보험자 감소 규모는 상당히 크다.

모든 자료에서 올해 상반기 건설업 고용의 큰 폭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건설업 경기 침체 심화가 그 배경이다. 건설기성⁵⁾은 지난해 하반기에 건축을 중심으로 약 9.4% 감소했었다. 올해 들어 건설기성 감소폭이 대폭 확대됐다. 건축에서 대폭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플랜트를 중심으로 토목 부문에서도 공사가 큰 폭 감소했다. 이는 즉각적으로 건설업 고용 감소 규모 확대로 이어졌다(그림 14 참조).

5. 서비스업 고용 증가 지속

서비스업 취업자는 48.4만 명 증가했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폭보다 27.8만 명 증가했다. 세부

〈표 7〉 업종별 서비스업 취업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2023년 1~6월	2024년 1~6월	2024년 7~12월	2025년 1~6월	남성	여성
서비스업 전체	465	206	282	484	201	283
- 도소매업	-54	-29	-93	-26	5	-31
- 운수창고업	-30	55	58	4	-13	17
- 숙박음식업	164	26	25	6	-22	27
- 정보통신업	54	64	80	58	51	7
- 금융보험업	25	5	28	53	24	29
- 전문과학기술	73	55	74	91	85	6
-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4	-51	-53	-29	2	-30
- 공공행정	13	41	35	43	26	17
- 교육서비스	10	-37	47	56	6	50
- 보건 및 복지	173	89	77	198	26	173
- 예술, 스포츠, 여가	37	11	9	11	4	7
- 협회, 기타 개인	15	-3	5	24	17	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5) 공사가 진행된 만큼의 진척도(공정률)에 따라 한 달 안에 실제로 이루어진 공사량의 가치를 평가해 집계한 금액.

업종별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과 운수창고업 고용은 소폭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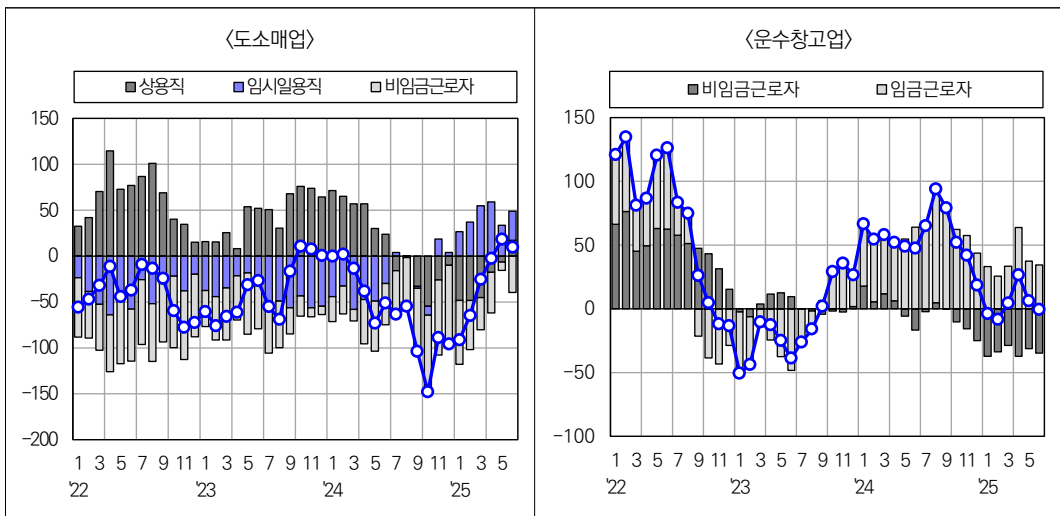
서비스업은 지난해보다 남성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진다. 2024년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남성 취업자는 감소했으나 2025년은 20만 명 증가했다. 남성 취업자는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정보통신업, 공공행정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여성 취업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 중심으로 증가했다.

도소매업 취업자 감소폭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줄어들었다. 2025년 1분기 취업자는 6.1만 명 감소했으나 2분기 0.8만 명 증가했다. 하지만 종사상 지위별로 볼 때 2분기 고용 증가의 대부분은 임시·일용직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고용 증가일 가능성이 높다. 비임금근로자는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2024년 하반기부터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

운수창고업 취업자는 0.4만 명 증가하여 지난해보다 고용이 둔화됐다. 임금근로자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소비로 증가했던 비임금근로자가 최근 들어 감소했기 때문이다. 직종별로 단순 노무 종사자는 소폭 증가했으나 사무 종사자, 운전 종사자를 포함한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감소했다.

[그림 15] 종사상 지위별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취업자 증감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는 2025년 1분기 4.6만 명 증가했으나 2분기부터 3.4만 명 감소했다. 임시·일용직의 감소가 주를 이뤘고 연령대별로는 청년층이 감소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 고용과 외식산업경기동향 매출지수의 추세가 유사하다(그림 16 참조). 2022년부터 매출이 회복되는 모

습과 고용이 증가하는 모습이 동시에 나타났고, 매출 회복세가 꺾이면서 고용도 감소했다. 사업체 매출이 감소하면서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은 청년층 취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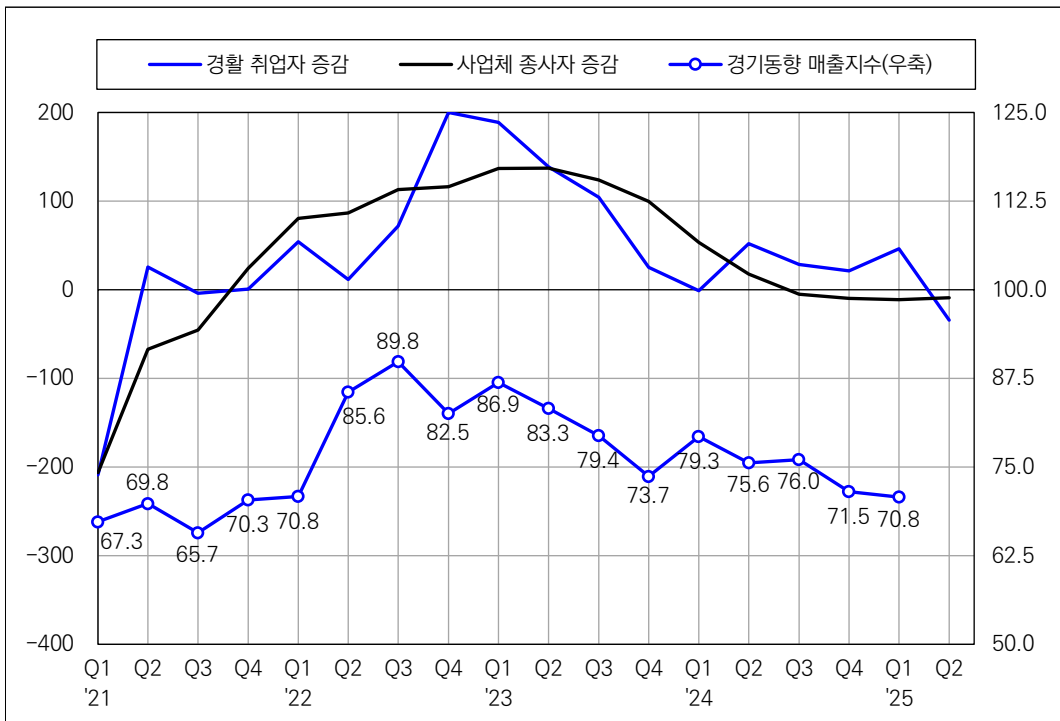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세 업종에서 취업자가 20만 명 이상 증가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증가 양상과는 달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감소하거나 증가 폭이 둔화됐다. 세 업종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어 두 자료 간 편차가 크지 않아야 함에도 고용 변동폭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사업시설관리·지원, 임대업 취업자는 2.9만 명 감소했다. 2023년 12월 이후 18개월 이상 감소했으나 최근 감소폭이 둔화됐다. 4월부터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증가했다. 그러나 취업자 비중이 높은 50대는 지속적으로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

교육서비스업은 2024년 10월 이후로 고용이 증가하여 2025년 상반기 5.6만 명 증가했다. 과거에는 청년층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했으나 최근에는 30대 중심으로 증가했다. 학원 및 소규모 교습시설에 해당하는 종사자인 10인 미만 사업체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진다.

[그림 16]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증감(좌축)과 외식산업경기동향 매출지수(우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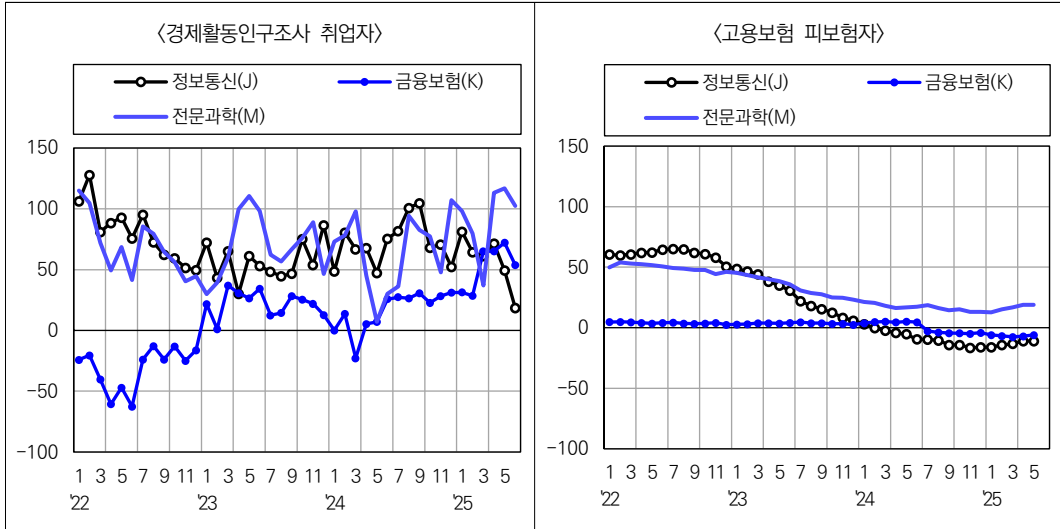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주 :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는 음식점 및 주점업 사업체(매 분기 3,000개)를 대상으로 외식경기를 살펴보기 위해 조사하는 자료로 현재 매출 상태가 지난해와 비교해서 증가 혹은 감소했는지 5점 척도로 조사(50 : 매우 감소 ~ 0 : 보통 ~ 150 : 매우 증가)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

[그림 17]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취업자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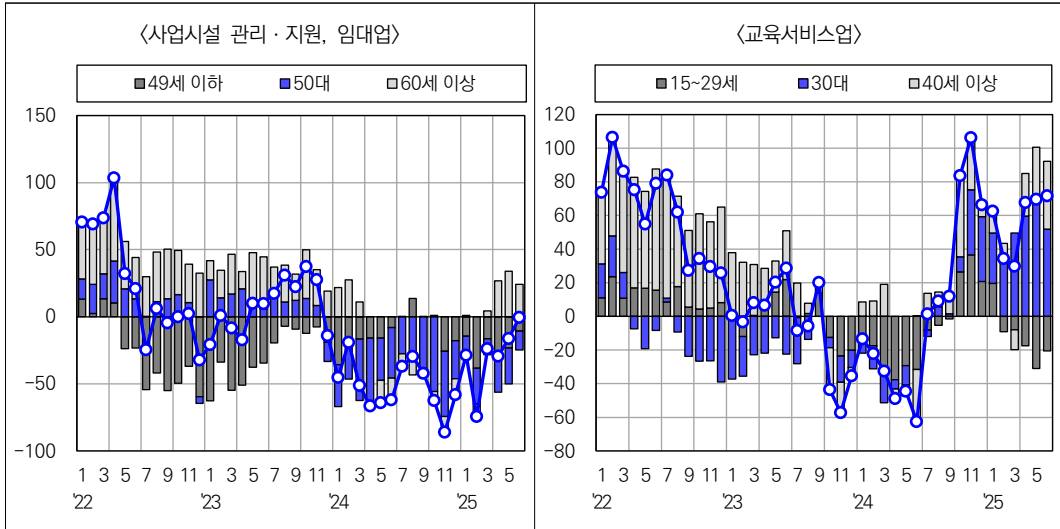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국고용정보원, 「월별 피보험자 현황」 고용행정통계(EIS).

[그림 18] 연령대별 사업시설관리·지원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취업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는 19.8만 명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취업자 증가폭보다 10만 명 이상 늘어나면서 전 업종 중 가장 많이 취업자가 증가했다. 보건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20, 30대·전문직·상용직 취업자는 지난해 감소했으나 2025년 상반기 증가했다. 사회

복지서비스업 고용도 지난해와 같은 고용 증가가 나타났다.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고령층·임시직·단순노무직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했다.

〈표 8〉 부문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증감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2023년 1~6월	2024년 1~6월	2024년 7~12월	2025년 1~6월	취업자 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173	89	77	198	3,112
연령대별	15~29세	-8	-57	-35	11	393
	30대	30	-5	-21	35	482
	40대	10	-16	-32	-4	496
	50대	60	37	55	20	653
	60대	37	50	68	47	523
	70세 이상	44	80	42	90	565
직종별	전문직	103	-46	-27	56	1,412
	서비스직	51	54	40	58	803
	단순노무직	15	79	55	59	583
종사상 지위별	상용직	199	7	16	86	2,136
	임시직	-23	86	59	121	89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6. 청년층 실업률 증가

2025년 상반기 실업자는 0.5만 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3.1%로 전년 동기와 동일한 수준이다. 15~29세는 실업자는 소폭 줄었지만,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실업률이 0.3%p 증가했다. 30대, 40대 실업률은 소폭 감소했다. 60세 이상 고령층 실업자는 노인일자리사업 시행에 따른 구직활동 증가에 영향을 받는다.⁶⁾ 2025년에도 고령층 실업자가 연초에 크게 증가하였다가 2분기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실직 1년 미만 실업자가 종사했던 전직 산업에 대해 살펴본다. 전직 제조업 실업자 수는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직 건설업 실업자는 증가했지만, 그 증가폭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건설업과 연관된 업종인 사업시설 관리·지원, 임대업도 2025년 5월까지 전직 실업자가 증가했으나 6월에는 감소했다.

6) 노인일자리 사업은 12월에서 1월 사이에 구직 등록을 받기 때문에 고령층 실업자 수는 연초에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 4년간 60세 이상 실업자 수에서 노인일자리 지원자로 간주할 수 있는 65세 이상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2월과 1월 평균이 70~80%가량인 반면 2월부터 11월 평균은 45% 전후이다.

〈표 9〉 전체 및 연령별 실업자와 실업률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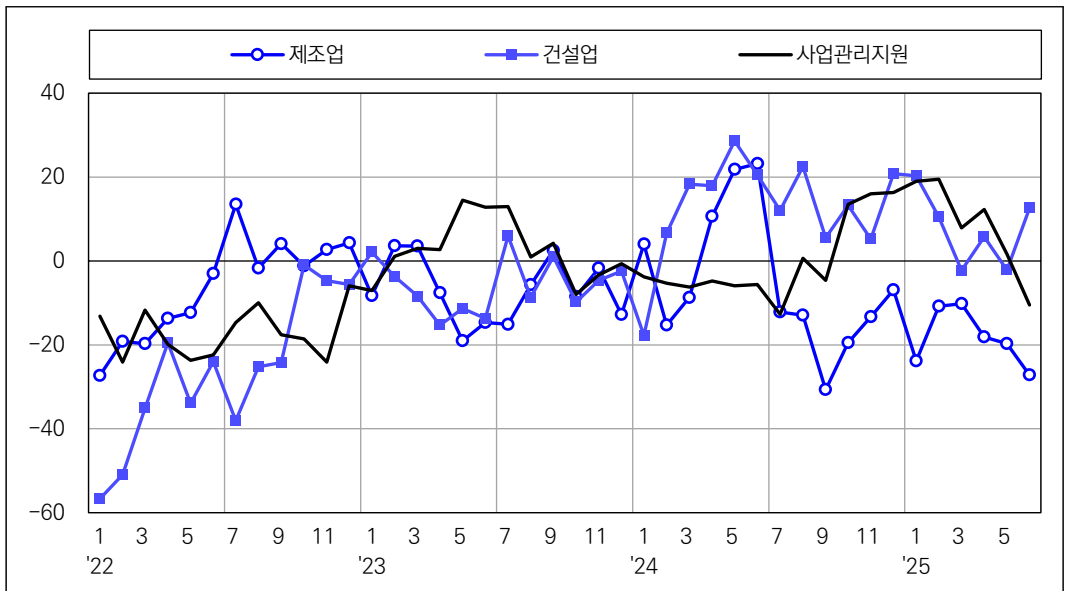
(단위: 천 명, %p, 전년동기대비)

	실업자 증감						실업률 증감					
	전체	연령별					전체	연령별				
		15~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15~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2022년 상반기	-319	-106	-48	-35	-79	-52	-1.3	-2.7	-0.8	-0.5	-1.2	-1.2
2022년 하반기	-90	-1	-9	-12	-35	-33	-0.4	-0.1	-0.2	-0.2	-0.5	-0.8
2023년 상반기	-77	-30	-4	-7	-3	-33	-0.2	-0.5	-0.1	-0.1	-0.1	-0.7
2023년 하반기	-15	-29	-7	-9	8	21	-0.1	-0.5	-0.1	-0.1	0.1	0.3
2024년 상반기	59	-7	16	6	13	31	0.1	0.1	0.2	0.1	0.2	0.3
2024년 하반기	14	-10	-4	-6	-4	36	0.1	0.0	-0.2	-0.1	-0.1	0.4
2025년 상반기	-5	-1	-11	-6	0	12	0.0	0.3	-0.2	-0.1	0.0	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19] 주요 고용 감소 업종별 전직 실업자 증감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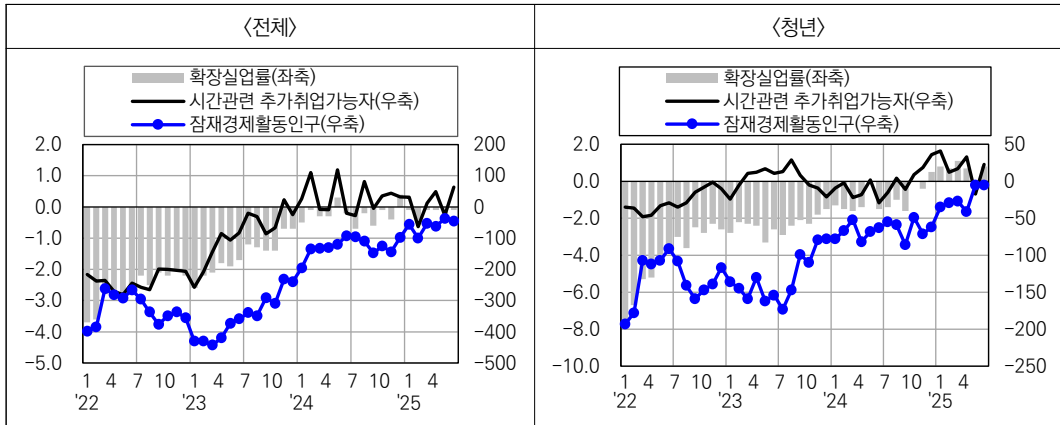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전체 확장실업률은 0.3%p 감소했다. 2022년 이후 감소폭이 줄어드는 추세다. 잠재경제활동인구 감소폭이 축소되고 있는 영향이 크다. 반면,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상반기 0.7%p 증가했다. 이는 청년층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림 20] 청년 확장실업률,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및 잠재경제활동인구 증감

(단위: 천 명, %p,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7. ‘쉬었음’ 증가폭 축소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동기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연령별 추이가 달랐다. 15~29세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구 대비 비중은 오히려 증가했다(표 10 참조). 청년층 고용이 부진한 영향이다. 30대, 40대는 여성 고용이 증가한 영향으로 비경제활동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50대 비경제활동인구는 상반기 증가했다. 60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도 증가했는데, 인구 대비 비중은 감소하여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참

〈표 10〉 전체 및 연령별 비경제활동인구 수와 비율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p, 전년동기대비)

	비경제활동인구 수 증감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증감					
	전체	연령별					전체	연령별				
		청년	30대	40대	50대	고령		청년	30대	40대	50대	고령
2022년 상반기	-413	-297	-108	-60	-131	183	-1.1	-2.3	-1.1	-0.6	-1.7	-1.1
2022년 하반기	-450	-240	-177	-58	-85	109	-1.1	-1.6	-2.2	-0.5	-1.0	-1.3
2023년 상반기	-154	-49	-123	-52	-62	132	-0.4	0.5	-1.6	-0.3	-0.7	-1.1
2023년 하반기	-115	-51	-119	-68	-39	162	-0.4	0.5	-1.6	-0.5	-0.5	-0.8
2024년 상반기	-113	-110	-107	-69	15	158	-0.4	0.1	-1.5	-0.5	0.0	-0.7
2024년 하반기	48	-63	-54	-67	44	189	0.0	0.7	-0.9	-0.5	0.4	-0.4
2025년 상반기	3	-14	-42	-89	13	135	-0.1	1.1	-0.8	-0.8	0.2	-0.9

주: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각 연령집단의 전체 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여가 활발함을 보여준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024년 3분기 이후 증가폭이 꾸준히 축소됐다. 특히 20대 '쉬었음' 인구는 올 2분기 들어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다. 그와 동시에 취업준비 인구가 늘어나 감소한 '쉬었음' 중 일부는 취업준비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60세 이상 '쉬었음' 인구도 상반기 증가폭이 축소됐는데 인구 증가에 비해서도 증가폭은 크지 않다.

20대 '쉬었음' 인구 증감은 세부 연령에 따라 추이가 다르다. 20대 초반 '쉬었음'은 2025년 1~4월 증가했지만 5월부터 감소하여 추세가 급격히 전환됐다. 5월 '쉬었음' 감소는 고졸과 초

〈표 11〉 연령별 '쉬었음'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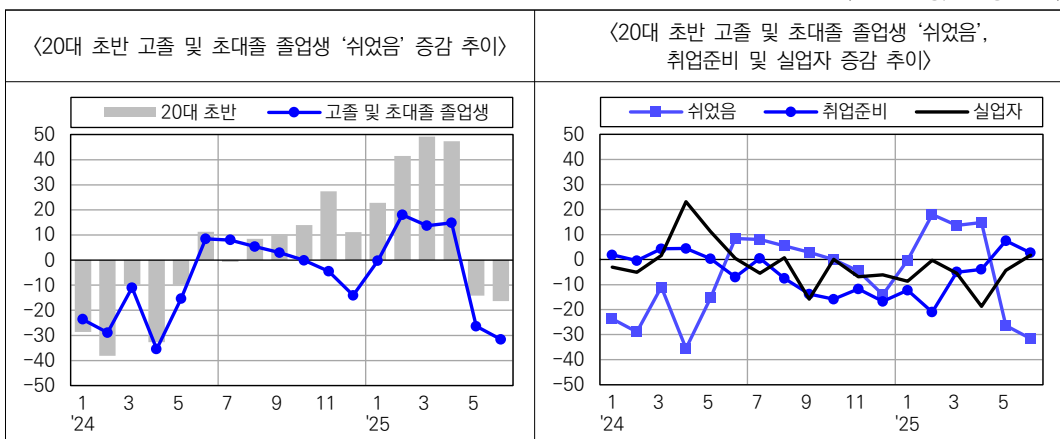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반 기			분 기					
		2024년 상반기	2024년 하반기	2025년 상반기	2024년 1분기	2024년 2분기	2024년 3분기	2024년 4분기	2025년 1분기	2025년 2분기
전 체		19	214	81	-46	84	240	188	107	54
연령별	15~19세	6	1	-13	4	7	3	-1	-8	-18
	20~29세	-19	54	36	-43	6	53	54	55	16
	30~39세	25	34	5	21	29	30	37	13	-2
	40~49세	19	5	-10	5	33	10	0	-7	-12
	50~59세	2	26	16	-23	26	23	28	19	13
	60세 이상	-14	96	46	-12	-17	122	69	35	5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21〉 20대 초반 '쉬었음' 증가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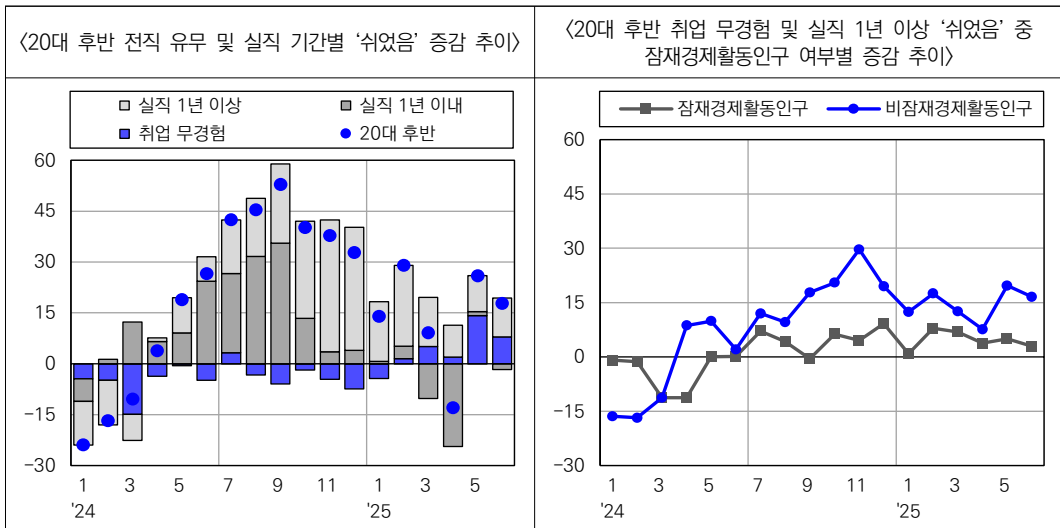
7) 20대 취업준비 인구는 2025 1분기 0.7만 명 감소했고 2분기 1.5만 명 증가했다.

대졸 졸업생이 감소한 영향이다. 같은 기간 취업 준비자와 실업자는 증가했다. 감소한 고졸 및 초대졸 졸업생 '쉬었음' 중 일부는 경제활동 진입을 준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0대 후반 '쉬었음'은 20대 초반과 달리 2025년 2분기에도 증가했다. 20대 후반 '쉬었음'은 취업 무경험, 실직 1년 이상에서 증가했다. 취업 무경험 및 실직 1년 이상 '쉬었음'은 취업 의사가 있는 잠재경제활동인구⁸⁾보다는 취업 의사가 낮은 비잠재경제활동인구⁹⁾에서 주로 증가했다.

[그림 22] 20대 후반 '쉬었음' 증가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Ⅲ. 2025년 하반기 고용 전망

작년 말, 2025년 상반기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 위축이 노동시장을 둔화시키고, 하반기에는 불확실성 해소와 기저 반등 효과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올해 상반기에는 정국 불확실성은 해소되었으나 대미 수출 관세 불확실성은 오히려 작년 말 예상한 것보다 더욱 고조되었다. 이는 한국은행이 상반기 GDP 성장률 전망치를 0.8%(2월)에서 0.1%(5

8) 잠재경제활동인구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자(잠재취업가능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자(잠재구직자)로 구성된다.

9)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잠재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한다.

월)로 조정하고, KDI가 0.9%(2월)에서 0.2%(8월)로 조정한 배경이기도 하다.

하지만 심각한 경제 위축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5년 상반기에는 취업자가 18.1만 명 증가하여, 비교적 양호한 취업자 수 증가가 나타났다. 이는 상반기 고령층 취업자 증가폭이 예상보다 매우 컸던 결과이다. 2025년에도 만 15세 이상 64세 미만 인구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고령층 인구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고용률도 지속 성장 중이다. 이에 상반기에는 정부 일자리사업으로 인한 고령층 고용 외 민간 고용도 크게 증가하여 예상했던 규모보다 큰 폭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이 상반기 동안 계속 부진했던 와중, 서비스업에서 호조가 이어져 상반기 취업자 수를 끌어올렸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고용은 위축되지 않고 계속해서 20만 명대 취업자 수 증가폭을 유지했다. 또한, 행정자료(고용보험DB) 기준으로는 고용 증가폭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의 취업자 증가폭이 경찰자료 기준으로는 감소하지 않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현상이 올해 상반기까지 유지되었다.

하반기에는 GDP 성장률이 상반기에 비해 반등할 것으로 주요 기관들은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하반기 GDP 성장률을 1.4%로¹⁰⁾, KDI는 1.3%¹¹⁾ 수준으로 전망하였다. 두 기관은 민생소비지원 쿠폰 발행과 집행, 그리고 상반기 두 차례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서 내수소비심리가 개선되는 것을 하반기 GDP 반등의 주요 요인으로 보았다.

하반기 취업자는 상반기 증가폭인 18.1만 명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19.8만 명 규모로 전망된다. 하반기에도 고령층 고용률과 인구 증가가 고령층 취업자 수를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견고하게 받쳐 줄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수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소비심리 개선으로 인해 그 외 서비스업에서도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5월 이후 증가 전환된 도소매업의 증가세 유지, 5월 이후 감소 전환된 음식·숙박업의 감소폭 축소, 작년 하반기부터 기저 반등 이상의 큰 폭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던 교육서비스업이 취업자 수 증가폭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행정자료와 달리 경찰자료상 취업자 수가 크게 집계되는 현상이 관찰된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의 경우, 정보통신업의 취업자 수 증가폭이 행정자료 수준으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하반기 취업자 증가폭은 상반기 수준보다는 낮게 유지될 전망이다.

제조업의 경우 2025년 7월 31일 대미 관세 협상 타결로 인해 대외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되었다. 4월 2일부터 25%의 품목 관세를 적용받던 자동차와 5월부터 25%의 품목 관세를 적용받던 자동차부품업은 15%로 관세를 10%p 낮추었지만 철강·알루미늄 제품과 그 파생상품은 50% 품목관세가 유지되어 일부 기계류와 자동차 부품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높아진 관세율에 직면해

10) 2025년 5월 28일 발표 기준.

11) 2025년 8월 기준.

있다. 따라서 하반기에도 철강·알루미늄 산업과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이 다수 속해 있는 기계류 산업에서는 고용 위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일부 자동차 부품 산업의 고용도 호전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호관세 유예기간 동안 부과되던 10% 기준관세가 상호 관세 협정 타결 후 15%로 인상되어 그 외 생산 품목의 관세는 높아진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대미 관세 협상 타결로 인한 제조업 고용효과는 불확실성 완화로 인한 미미한 개선이 나타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상반기의 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건설업의 경우 여전히 건설 기성 감소폭이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취업자 수의 뚜렷한 회복세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작년 하반기 취업자 수 감소폭 확대로 인한 기저 반등을 실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높은 취업자 수 감소폭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추경에서 건설 SOC 집행을 조기에 추진하는 것을 예고했으나 정부 SOC사업의 유찰률이 높은 점¹²⁾을 고려할 때, 올 하반기에 추경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지 않는다.

다만,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의 취업자 수 증가폭이 실현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건설 SOC 집행을 개선, 일자리 사업을 포함하는 3차 추경 실시, 철강업에서 중국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확대¹³⁾, 고환율 지속으로 인한 제조업 수출기업 실적 및 기업 심리 개선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제조업, 건설업의 작년 부진에 따른 기저 반등 효과를 일부 누리면서 20만 명대의 높은 취업자 수 증가폭을 기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보다는 상반기에 취업자 수 증가가 예상보다 컸던 이유가 예상을 넘어선 고령층 취업자 수 증가에 힘입었던 것처럼 하반기에도 이러한 경향이 지속된다면 그로 인해 20만 명을 상회하는 취업자 증가도 실현될 수 있다.

〈표 12〉 2025년 연간 고용 전망

(단위: 천명, %)

	2024			2025p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p	연간
취업자	28,449	28,702	28,576	28,631	28,900	28,767
(증가율)	0.8	0.3	0.6	0.6	0.7	0.7
(증감수)	220	99	159	181	198	191
실업률	3.1	2.5	2.8	3.1	2.6	2.9
고용률	62.5	62.9	62.7	62.6	63.1	62.9

주: p는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12) 박재영·손동우(2025. 7. 24.), 「“해봤자 손해다” … 눈 가리고 예산 책정한 SOC사업, 건설사들도 외면한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state/11360207>

13) 올해 2월 중국산 후판에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7월 24일에 추가로 일본, 중국산 탄소강 등에 대한 덤핑조사 결과 반덤핑 관세 부과 타당 결정 등 올해 들어 반덤핑 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취업자 수 증가폭 개선은 양질의 일자리 증가나 장기간 위축되었던 청년층 고용률 개선과 동반되는 호조세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적인 취업자 수 모니터링만큼이나 핵심생산연령인구 일자리의 질의 변화도 세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취업자 수 호조세와 체감 노동시장 상황 간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표 1\]](#)

〈부표 1〉 주요 고용지표 추이

(단위: 천 명, %, %p, 전년동기대비, 전년대비)

		연도		반기			분기		
		2023년	2024년	2024년 상반기	2024년 하반기	2025년 상반기	2024년 4분기	2025년 1분기	2025년 2분기
15세 이상	15세 이상 인구	45,407	45,570	45,533	45,607	45,712	45,630	45,692	45,738
	(증감)	(147)	(163)	(165)	(161)	(179)	(152)	(170)	(188)
	취업자	28,416	28,576	28,449	28,702	28,631	28,570	28,215	29,046
	(증감)	(327)	(159)	(220)	(99)	(181)	(52)	(155)	(207)
	(남성 증감)	(24)	(-29)	(19)	(-76)	(-1)	(-91)	(-32)	(30)
	(여성 증감)	(303)	(188)	(201)	(175)	(182)	(143)	(186)	(178)
	고용률	62.6	62.7	62.5	62.9	62.6	62.6	61.8	63.5
	남성	71.3	70.9	70.8	71.0	70.5	70.7	69.8	71.2
	여성	54.1	54.7	54.4	55.1	55.0	54.8	54.0	56.0
	실업자	787	823	917	729	912	816	980	844
	실업률	2.7	2.8	3.1	2.5	3.1	2.8	3.4	2.8
	남성	2.6	2.8	3.1	2.4	3.1	2.6	3.2	3.0
	여성	2.8	2.9	3.1	2.6	3.1	3.0	3.6	2.6
15~ 64세	비경제활동인구	16,204	16,172	16,167	16,177	16,170	16,244	16,497	15,843
	(증감)	(-134)	(-32)	(-113)	(48)	(3)	(33)	(-6)	(13)
	생산가능인구	35,956	35,618	35,715	35,521	35,346	35,473	35,396	35,296
	(증감)	(-278)	(-338)	(-318)	(-358)	(-369)	(-374)	(-370)	(-368)
	고용률	69.2	69.5	69.3	69.8	69.6	69.7	69.0	70.2
	남성	76.9	76.8	76.7	76.8	76.4	76.7	76.0	76.9
	여성	61.4	62.1	61.7	62.5	62.6	62.5	61.9	63.3
	취업자	24,891	24,770	24,758	24,781	24,607	24,724	24,429	24,785
	(증감)	(68)	(-122)	(-61)	(-182)	(-151)	(-202)	(-190)	(-11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부표 2〉 연령별 주요 고용지표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p,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연도		반기			분기		
		2023년	2024년	2024년 상반기	2024년 하반기	2025년 상반기	2024년 4분기	2025년 1분기	2025년 2분기
15~29세	인 구	-177	-238	-232	-245	-208	-250	-214	-202
	취업자	-98	-144	-115	-173	-193	-193	-220	-166
	실업률	-0.5	0.0	0.0	0.0	0.3	0.3	0.4	0.1
	고용률	-0.1	-0.4	-0.1	-0.7	-1.2	-0.9	-1.6	-0.9
30대	인 구	-73	16	0	32	58	39	48	67
	취업자	54	90	91	90	111	84	108	114
	실업률	-0.1	0.1	0.2	-0.1	-0.2	-0.3	-0.3	-0.2
	고용률	1.6	1.2	1.3	0.9	0.9	0.8	1.0	0.9
40대	인 구	-121	-149	-145	-153	-151	-152	-154	-149
	취업자	-54	-81	-82	-80	-57	-87	-66	-48
	실업률	-0.1	0.0	0.1	-0.1	-0.1	0.0	0.0	-0.2
	고용률	0.5	0.5	0.4	0.5	0.8	0.4	0.7	0.9
50대	인 구	12	62	71	53	-17	36	-1	-33
	취업자	59	28	43	12	-31	8	-16	-45
	실업률	0.0	0.1	0.2	-0.1	0.0	0.1	-0.1	0.1
	고용률	0.6	-0.2	-0.1	-0.3	-0.2	-0.2	-0.2	-0.2
60세 이상	인 구	507	473	472	474	498	479	490	505
	취업자	366	266	282	250	351	239	349	353
	실업률	-0.2	0.3	0.3	0.4	0.0	0.9	0.3	-0.3
	고용률	1.0	0.4	0.5	0.2	0.9	0.2	0.9	0.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